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2월 11일)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전국 초·중·고 종립학교 '청소년 화쟁 수업' 실시

조계종 화쟁위·교법사단 발간 '하이, 화쟁_라이트' 활용

종교 수업 교재로 발돋움
8개 학교 시범교육 거쳐
올해 22개교 전면 시행

청소년기 겪는 갈등 · 고민
화쟁사상 접근해 풀어내
심리불안 · 범죄 예방 기대
청소년 인성교육 효과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소년기 대인관계서 비롯되는 갈등을 '화쟁(和諍)'의 가치로 풀어내는 인성교육이 전국 초·중·고 불교종립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지난해 종립학교 8곳에서만 진행된 화쟁 교육이 '시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22개 종립학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화쟁을 이해하면서 불교적 소양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정문 스님)에 따르면 올해 동대부고를 비롯한 초·중·고 종립학교 22곳에서 청소년 갈등 해결 가이드북 〈하이, 화쟁_라이트〉 총 4850부를 신청했다. 현재 교법사가 없는 학교 3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초·중·고 종립학교가 화쟁 교육을 실시하는 셈이다. 〈하이, 화쟁_라이트〉는 지난 2020년 발간된 〈하이, 화쟁〉의 실습 중심 화쟁 안내서로, 일부 종립학교의 시범수업을 거쳐 지난해 6월 기존 책보다 얇게 개정했다.

화쟁위원회가 전국교법사단과 함께 발간한 이 책은 △갈등 대처 유형 찾기 △감정 찾기 △속마음 찾기 △화쟁으로 대화하기 △화쟁 대화 실습하기 △화쟁이야기 '원효 스님 깨닫다'라는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진로를 놓고 갈등하는 아빠와 아들, 이성친구와의 갈등과 같은 일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이, 화쟁_라이트〉는 학교별로 적게는 50부, 많게는 650부를 신청하면서 화쟁 교육에 대한 종립학교의 관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활용한 화쟁 교육은 수업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두 달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화쟁 교육이 이렇게 확대된 배경에는 청소년기에 겪는 심리 불안이나 이로 인한 사회 범죄 등이 늘어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지난 2021년 고등학생들이 의정부시 민락동의 번화가에서 술에 취한 30대 가장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대부영석고는 화쟁을 통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영석고 학생들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서 또래에 의한 사건이었기에 경각심이 커졌다.

권진영 동대부영석고 교법사는 "안타까운 사건에 재학생이 휘말리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갈등에서 비롯되기에 갈등의 개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교법사단 연수에서 화쟁으로 푸는 갈등 해소법을 배워보니 교법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가치를 느꼈다"고 화쟁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교법사는 "화쟁은 어떤 주장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닌 모든 걸 인정할 수 있는 독특한 해법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화쟁은 비빔밥, 적극적인 화쟁은 화학작용을 통한 식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며 "화쟁 가이드북은 화쟁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정리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화쟁 교육은 갈등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에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듣는 종교수업 외에 창의적체험학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확장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반드시 교법사가 아니더라도 화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는 종립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화쟁위원회 위원인 김가연 남양주광동고 교법사는 "요즘 학교현장에서 소통과 갈등 해결에 대한 관심이 많다. 창의적체험학습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화쟁 교육이 가능하다"며 "자기가 겪는 갈등을 쉽사리 풀어놓지 못하던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데 화쟁 교육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법사는 화쟁 교육이 종립학교를 넘어 학교 전반에 확산되기 위한 과제로 체계적인 홍보를 꼽았다. 그는 "선생님들이 화쟁 교육을 해보니 어떤 점이 좋았다는 걸 알리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며 "일반 선생님들을 위한 화쟁 강의나 유튜브를 통한 학생들의 갈등과 해결사례 공유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평안 위해 중심 잡아달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포함한 10명의 종교지도자들이 3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의료개혁 △정신건강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조언을 정부에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국민 일상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윤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 사진제공=대통령실

동국대 불교 교양교재 '통일·표준화' 완료

건학위 기본기관장 연석회의서 보고
'불교수업' 등 공통교재 개발 · 발간
서울 · WISE캠 교양수업 공통 활용
단과대학별 불교학생회 신설 추진도



동국대에서 운영 중인 불교 교양수업의 공통교재와 교안이 개발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활용에 들어갔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3월 13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3차 건학기본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기관별 5대 공통 의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건학이념구현 교과목 교육과정 표준화 및 고도화' 사업인 교양과목 교재 통일·표준화 추진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는 불교교양수업인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1·2'에서 공통교재나 교안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강의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다르칼리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은 지난해부터 불교 교양과목 공통교재와 공통교안 개발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세 기관은 '불교와 인간'교재 〈불교수업〉, '자아와 명상1·2'교재 〈대학생을 위한 자아와 명상1·2〉이라는 공통교재를 새롭게 개발·발간했다.

또한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1·2'에 활용될 15주차 수업용 교안 PPT도 개발됐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는 불교 교양교과목에 대해 통일된 교재와 교안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황순일 불교대학장은 "앞서 '불교와 인간' 수업 교재로 〈불교입문〉이 있었으나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아의 명상' 수업은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가 각자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고, 통일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 불교대학,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에서 공통 필진을 선발해 불교 교양교과목 교재와 교안을 1년여 동안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불교를 만날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학생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캠퍼스는 일반 교양과목 중 불교 관련 수업인 '템플스테이: 산사에서의 행복한 하루'와 '명상, 레벨업'을 신설·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5월 18일부터 19일 강원도 만해마을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산사에서의 행복한 하루'는 수강인원이 35명이었지만, 신청자가 670명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심화된 명상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상 레벨업'은 64명의 학생이 수강신청했고, MBSR 등 전문 명상프로그램을 배우게 된다. 강사로는 자헌 스님, 문현공 교수가 참여한다.

동국대 단과대학별 불교학생회 창립도 추진된다.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에서 불교학생회 '템플 애플'를 창립하며, 이후 동국대의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학생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은 "동국대 불교교양과목 공통교재와 교안이 새로 제작돼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에서 함께 활용하게 됐다"며 "공통 교재로 수업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최선의 결과물은 학생들이 불자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면학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를 강조했던 범산 김법린 선생은 '기다리는 불교는 이미 썩어있는 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동국대 불교학생회 회원이 200명대에 머물고 있다. 동국대부터 불교학생회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지도교수와 교원들이 나서서 불교학생회 회원 유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